

[종합]

2009년도 재산등록 현황

(단위:천원)

◇광주·전남 국회의원

Table with 3 columns: 성명, 재산, 증감. Lists names like 박주선, 조영택, 김영진, 김문태, 김기정, 김재균, 김동철, 이홍섭, 박지원, 김성곤, 주승용, 서갑원, 최인기, 유은근, 김효석, 박상천, 유선호, 김영록, 이윤석, 이나연.

◇광주·전남 고위 기관장

Table with 4 columns: 직위, 성명, 재산, 증감. Lists positions like 광주고법원장, 광주지법원장, 광주고검장, 광주지검장, 광주지방경찰청장, 전남지방경찰청장, 광주시교육감, 전남도교육감.

◇광주시

Table with 4 columns: 직위, 성명, 재산, 증감. Lists various city officials like 시장, 행정부시장, 경제부시장, 동구청장, 서구청장, 남구청장, 북구청장, 관공구청장, 시의원.

◇전남도

Table with 4 columns: 직위, 성명, 재산, 증감. Lists various provincial officials like 도지사,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 목포시장, 여수시장, 순천시장.

Table with 3 columns: 성명, 재산, 증감. Lists various individuals with their asset and change values.

도의원

(해남)

(무안)

도의원

건설·조선 2차 구조조정 발표

전남업체가 3분의 1

전체 20개사 중 6개사 '충격'

전남지역의 4개 건설사와 2개 조선사가 체권은행단이 선정한 2차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20개 구조조정 대상 업체 가운데 전남 업체가 6개나 돼 지역 경제가 버겁게 맞고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강원권 국민은행장을 비롯, 주요 은행장들은 27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공능력 101~300위권의 70개 건설사와 4개 조선사 등 74개 기업에 대한 신용위험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결과, 도원건설(경기), 새부동산산업(서울), 동산건설(충남), 기산종합건설(경기) 등 4개 건설사와 YS중공업(전남) 등 조선사 1곳은 D등급으로 분류돼 더이상 금융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

송충종합건설(전남), 한국건설(충), 중도건설(충), 새한종합건설(충)을 비롯해 신도종합건설(경기), 태왕(대구), SC한보건설(서울), 화성개발(대구), 영동건설(부산), 늘푸른스카빌(서울), 대원건설산업(인천), 트레이에르건설(서울), 대아건설(경기), 등

13개 건설사와 TKS(전남), 세코중공업 등 2개 조선사는 C등급을 받아 채권단의 공동관리(워크아웃)를 받을 전망이다.

주채권은행별로는 국민은행이 6개사로 가장 많고 ▲농협 3개사 ▲신한 2개사 ▲광주 2개사 ▲하나 1개사 등이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건설업체 4곳과 조선업체 2곳 등 6곳으로 가장 많이 포함됐으며 경기도 4곳, 서울 3곳, 대구 2곳 등이다.

광주·전남 경제에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데다, 조선업의 경우 전남의 성장동력이자 전남의 주요 수출품인 조선업의 위기를 막기 위한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일부 업체의 경우 나주혁신도시 조성 공사와 아파트 건립 공사를 진행중인 업체도 있어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공사 차질도 우려된다.

채권단 대표인 강원원 회장은 "금융권이 15개 워크아웃 기업에 대해 자금 계획 이행을 전제로 실효성 있는 금융지원과 철저한 경영관리를 통해 경영정상화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기업의 조기 회생을 위해 최대한 이른 시일내에 경영정상화 계획 약정(MOU)을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붕괴

작년 GNI 1만9천231달러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다시 1만 달러대로 추락했으며 경제성장률은 2.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실질 국민총소득 성장률은 교역조건이 악화하면서 외환위기 이후 첫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2008년 국민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GNI는 1만9천231달러로 집계돼 2007년 처음으로 2만 달러(2만1천695달러)를 돌파한 지 1년 만에 다시 뒷걸음쳤다.

1인당 국민소득은 외환위기의 충격 속에 1998년 7천355달러로 곤두박질친 뒤 2000

년 1만841달러로 다시 1만달러를 회복했다. 이후 2002년 1만1천499달러, 2003년 1만2천720달러, 2004년 1만4천193달러, 2005년 1만7천531달러, 2006년 1만9천722달러 등으로 증가세를 이어왔다.

물가 등을 감안한 국민소득의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는 실질 GNI 역시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교역조건이 악화하면서 전년보다 0.8% 감소했다. 연간 실질 GNI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외환위기 때인 1998년(-8.3%)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실질 GDP 성장률은 전년보다 2.2% 성장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은이 지난해 1월 발표한 속도치 2.5%보다 낮은 것으로, 1998년(-6.9%) 이후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국제결혼 이주여성 8천명

광주 거주 외국인 남편도 181명

광주·전남지역에 거주하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모두 8천여 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2008년 말 현재 광주에 거주하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2천626명이며 전남지역 이주여성은 5천455명 등 모두 8천81명으로 집계됐다.

광주지역 이주여성의 국적은 중국 1천579명, 베트남 474명, 필리핀 273명, 일본 125명 등이다. 이와 함께 광주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남편도 181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

사됐다. 또 같은 기간 광주지역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는 1천 608명으로 6세 이하 1천86명, 7~12세 401명, 13~15세 58명, 16~18세 63명으로 분류됐다.

전남지역 이주여성 국적은 베트남이 1천 681명으로 가장 많은 것을 비롯해 중국 1천 560명, 필리핀 963명, 일본 637명, 캄보디아 248명 등의 순이다.

전남의 다문화가족 자녀는 6천48명이며 이 가운데 1~5세가 3천251명, 6~12세 2천 299명, 13~18세 333명 19세 이상 125명 등으로 집계됐다.

/홍행기자 redplane@

시 설

전남지역 MOU는 '절반의 약속'인가

(투지양해각서)

최근 4년간 전남도내에서 체결된 투자유치양해각서(MOU) 가운데 실제로 투자가 이뤄진 비율(투자실행률)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04년 6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체결한 지역 내 MOU는 437건에 달한다. 하지만, 실제 투자가 이뤄진 건수는 198건으로 투자실행률은 45%에 그쳤다. 실제 투자금액은 더욱 저조하다. 전체 투자약속 금액 40조3천억여원 중 실제 투자액은 4분의 1 수준인 10조원에 머물렀다.

투자실행률이 저조한 것은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 여파로 기업들의 투자여건이 크게 악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경기침체만을 탓할 수 없는 일이다. 지난 2004~2006년은 호황기였기 때문이다. 전남지역 자체에 투자 결

립들은 없지 않게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얘기다.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시급하다. 사회기반시설의 확충과 함께 노사문화의 선진화, 친 기업 정서 함양, 규제해파, 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부터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다. 또 지금처럼 부지매입에서 인·허가까지 2~3년이 걸리는 투자기간을 대폭 단축해야 한다. 전남도나 각 지자체가 MOU 체결에만 급급하고 사후관리에 소홀하지 않았는지도 살펴볼 일이다.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는가 여부가 지역의 성장과 잠재력을 가른다. 따라서 전남도와 각 지자체 등은 투자실행률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현실적인 장·단기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

경제난 속 촌지관행에 이종고 겪는 학부모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올해를 '촌지와 전쟁의 해'로 선포하고 연중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 중 하나인 교단에서의 촌지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다. 초·중·고교의 촌지수수는 예전보다 많이 줄어든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남아 대다수 교사에게는 불명예를, 학부모에게는 부담을 주고 있다.

최근 권익위가 발표한 촌지실태에 따르면 학부모의 18.6%가 교사들에게 촌지를 건넨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이 36.4%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전남 36.2%, 광주 31.9%로 뒤를 이었다.

실제로 광주지역 일부 학교에서는 촌지 수준이 1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학기를 맞아 반장 등 임원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부담이 더 크다.

가짜나 경기침체로 힘든 데다 교사들에게 촌지까지 건네는 등 이종고를 겪고 있는 것이다.

촌지관행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촌지를 주느냐, 주지 않느냐에 따라 학생을 대하는 교사의 태도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학부모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촌지를 줄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학부모들이 선생님들에게 정성이 담긴 작은 선물을 하는 것은 아예 보편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이 때문에 학생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그로 인해 학부모들이 부담을 갖는다면 더 이상 선물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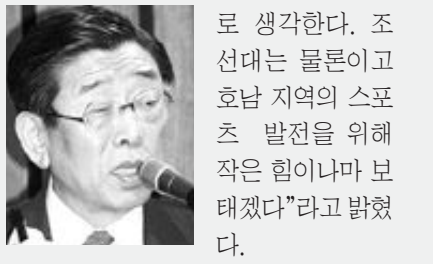
촌지근절의 핵심은 교사 스스로의 양심과 노력이다. 학부모들 역시 촌지를 통해 '내 자녀를 잘 바랄라'는 그릇된 의식을 바꿔야 한다. 권익위의 강도높은 단속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교사와 학부모들의 자발적인 실천이다.

김운용 前 IOC 부위원장, 조선대 석좌교수

김운용 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부위원장이 조선대(총장 전호중) 석좌교수로 활동한다.

위촉식은 31일 오전 10시30분 조선대 총장실에서 진행되며, 전날에는 광주 라마다르네상스호텔에서 광주태권도협회가 주최하는 기념 만찬도 열린다.

위촉식 후 1시간 동안 '올림픽운동과 스포츠와교'를 주제로 특별 강연회를 가질 예정이다. 김 전 IOC 부위원장은 "태권도와 스포츠 외교에 바친 지난 세월을 학계에서 높이 평가해줘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



조선대(총장 전호중) 석좌교수로 활동한다. 위촉식은 31일 오전 10시30분 조선대 총장실에서 진행되며, 전날에는 광주 라마다르네상스호텔에서 광주태권도협회가 주최하는 기념 만찬도 열린다. 위촉식 후 1시간 동안 '올림픽운동과 스포츠와교'를 주제로 특별 강연회를 가질 예정이다. 김 전 IOC 부위원장은 "태권도와 스포츠 외교에 바친 지난 세월을 학계에서 높이 평가해줘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 조선대는 물론이고 호남 지역의 스포츠 발전을 위해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라고 밝혔다.

"고통 분담으로 경제위기 극복하자"

'전남 노·사·민·정 협약' 체결

전남지역 노·사·민·정 대표 1천여 명이 28일 오전 11시 나주 영산포 둔지에서 경제위기 극복 및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남지역 노·사·민·정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각 주체들의 공동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데 따른 것으로, 앞으로 합의사항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게 된다.

박준영 도지사는 이와 관련 "이번 협약에

는 최초로 '민'측 대표가 참여하게 된다"며 "진정한 노·사·민·정 대협의 정신이 우리 사회 각 부분으로 퍼져나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소중한 전환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노·사·민·정은 '협약문' 전문에서 각각의 분야를 대표해서 자발적인 협력과 양보로 고통을 분담하고, 사회적 대화와 협의를 통해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이 가능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행동규범을 실천하기로 다짐했다.

/홍행기자 redplane@

광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Contact info: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업인, 광주광역시 동구 금동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51, 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빛의만평 - 김중두. 진짜 갈등 생긴다. Illustration showing people in a meeting with speech bubbles.

여수시 호텔사업자에 인센티브. 박람회 숙박시설 유치 위해 사유지 매각·무상임대 추진. 여수시가 2012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사유지 매각과 무상임대 등 획기적인 관광숙박시설 투자유치 대책을 마련하고 나섰다.